



2024 YDP창의예술교육센터

# 창의네 여행사



항의네  
여행사



# 창의네 여행사



## 목차

- 5p. 창의네여행사?
- 9p. 크루들의 여행 노트 : 과정 기록
- 41p. 크루들의 사진첩 : 전시 기록
- 53p. 창의네여행사를 마치며

01.

## 창의네여행사?

YDP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상의 여행사에서

영등포를 탐색하며 발견한 이야기를 모아

즐거운 문화예술 콘텐츠로 만들었던 청소년들의 이야기

## 함께한 크루들

진디(박진영)



예술 관련된 것은 무조건 좋아한다. 주로 그림을 그린다.

연우(이연우)



취미는 책 읽기, 고양이와 동물을 좋아한다. 나중에 글 작가가 되고 싶다.

하비에르(조하준)



창의네여행사에서는 '하비에르'지만 랩 네임은 '리태그'로, 랩을 좋아하고 공연도 하러 다닌다.

## 함께한 멘토들

노랑(이연우)



동물권, 환경, 지역, 언어에 관심을 두고 시각예술, 출판, 문화기획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각 예술가

지연(이지연)



도시의 빈 구멍에 몸을 던지면 앨리스처럼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다고 믿는 문화기획자

한유(이한우)



나를 표현하는 단어는 음악, 기타, 축구! 여행 다닐 때 행복하고 즐겁다.

묘짚이(김효정)



베이킹이 취미로, 정이 많고 사람을 좋아한다.

하연(조하연)



춤추는 걸 좋아한다. 나에게 여행이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다.

토리(박현빈)



'창터'라고 부르는 공간에서 생기는 이야기를 주섬주섬 모아 문화예술로 잇는 문화기획자

묘미(지연경)



청소년, 지역 주민 그리고 예술가들과 즐겁게 일하는 창터 Player 묘미!

하빈(강하빈)



ISFJ.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

태완(정태완)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02.



## 크루들의 여행 노트

과정 기록

# \* 첫 번째 만남

## 만남 날

2024년 5월 11일

## 만남 장소

YDP창의예술교육센터

## 오늘 한 일

### 창의네여행사 여행 시작!

YDP창의예술교육센터에 8명의 청소년 크루들이 모였다. 창의네여행사는 어떤 곳인지? 함께하는 예술가들은 누구인지? 이야기를 듣고 나와, 나에게 소중한 여행 이야기를 소개하는 ZINE을 만들었다. ZINE에는 좋은 기억이 있는 여행 장소, 나의 여행 스타일 등등이 한가득 담겼다.

### ※ ZINE이란?

독립 간행물로 복사기를 활용하거나 콜라주, 직접 쓰고 그리는 활동을 통해 독창적인 텍스트와 이미지를 책으로 엮은 것을 말한다. 적은 페이지로 소량 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가 만든 ZINE

12



## 크루 한 마디

하연 이 좋아하는 것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덕질♡

하빈 이 생각하는 여행  
터키 가서 열기구 봤던게  
생각나요 :)

한유 의 기억에 남는 여행  
가장 최근에 다녀온 경주가  
기억에 남아요. 처음으로 친구  
와 다녀온 여행이었어요.



13



# \*\*\* 두 번째 만남

## 만남 날짜

2024년 5월 1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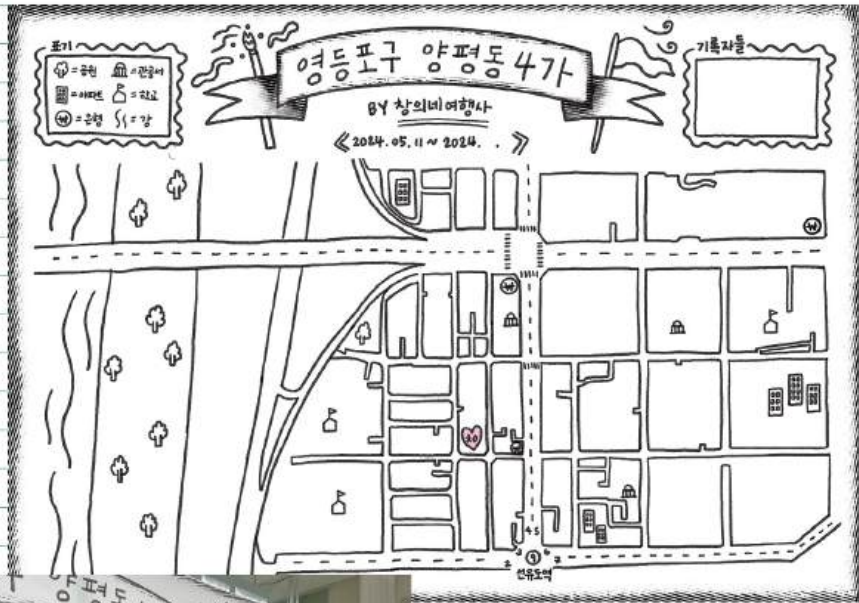
## 오늘 한 일

### ① 양평동4가 동네 탐험

양평동 4가의 모습이 그려진 엄청나게 큰 지도가 생겼다!  
쓰레기를 다트 삼아 지도에 던지고, 지도에 맞은 장소에  
무작위로 갔다 오는 랜덤 게임을 하고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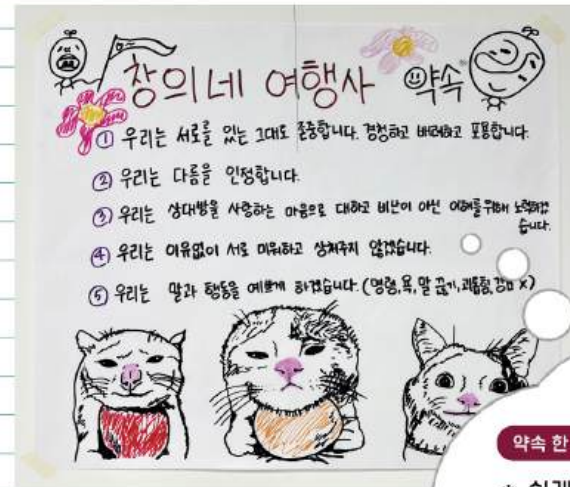
## 만남 장소

YDP창의예술교육센터,  
양평동 4가 이곳저곳



### ② 우리만의 약속문 만들기

서로 다른 우리가 만났으니 잘 지내기  
위한 약속을 만들기로 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나를 어떻게 대해주면 좋겠  
는지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 창의네여행사  
약속문을 만들었다.



## 약속 한 마디

- \* 쉽게 판단하지 않기
- \* 서로의 지향점을 존중해주기
- \* 욕 X, 비속어 X, 말 끊지 않기
- \* 다름을 인정하기



# \*\*\* 세 번째 만남

## 만남 날

2024년 5월 25일

## 만남 장소

YDP창의예술교육센터,  
양평동 4가, 선유도공원

## 오늘 한 일

마을해설사 '현존'과 함께 양평동 4가, 선유도공원 탐험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선유도공원으로 출발했다. 선유도  
공원은 선유도의 옛 정수장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재활용  
생태공원이다. 그리고 선유도에는 과거 선유봉이라는  
작은 봉우리가 있었다고 한다. 1970년대 한강 개발 당시  
선유봉에서 나온 흙이 지금의 여의도를 만드는 데 사용  
되었다니 생각지도 못한 사실에 모두 놀라워했다.



16



17



“선유도는 원래  
섬이 아니었다.”

## 크루 한 마디

**하비에르**  
올해도 선유도에 관한 랩을  
출수 있겠군요.  
※ 하비에르는 2023 창의네어행사  
에서 선유도를 주제로 한 랩을  
만들었어요.

**연우**  
선유마을에 오래 살았는데도  
선유도가 선유봉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신기해요.



# \*\*\* 네 번째 만남

**만남 날**

2024년 6월 1일

**만남 장소**

용산구 해방촌  
(전시장, 독립서점 등...)

**오늘 한 일**

**해방촌 문화예술 투어**

'노랑'이 사는 동네인 해방촌에 놀러 갔다. 녹사평역 1번 출구에서 만나 전시장 '상희움', 독립서점 '풀무질'을 거쳐 신흥시장으로 총총 걸었다. 전시장 'POST'를 지나 고양이 소품을 파는 '고양이 알레르기'에서 단체 사진도 찍었다. 이 동네에는 언덕이 유난히 많다. 힘들어질 때쯤 해방촌이 내려다보이는 카페에서 잠깐 쉬었는데 아직 어색한 사이라 침묵이 맴돌았다ㅎ\_ㅎ 카페를 떠나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다 만난 독립서점 '인프로그레스'에서는 책방지기 선생님이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셨다. 마지막으로 '스토리북엔필름'에서 각자 원하는 책 1권씩을 고르기까지 행복한 추억을 쌓은 토요일이다!



**해방촌 문화예술투어**  
by 노랑 88

START! → 녹사평역 1번출구 → 언덕들이 → 상희움  
→ 전시장 POST → 신흥시장 → 풀무질  
→ 신흥시장 → 스토리북엔필름 해방촌점  
→ 인프로그레스 → 녹사평역

**창의 네 여행사**

노랑, 하빈, 연우, 잔디



**크루 한 마디**

**하빈**  
영등포를 떠나 다른 동네를 돌아본건 처음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하연**  
나중에 해방촌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우**  
고양이 소품을 보니까 우리 레오가 생각났어요.

**잔디**  
이 책 꼭 사고 싶는데... 너무 비싸죠?



# 다섯 번째 만남

## 만남 날

2024년 6월 8일

## 만남 장소

YDP창의예술교육센터,  
양평동 4가 이꽃저곳

## 오늘 한 일

소리 여행가 '전광표' 작가와 동네 소리 채집하기  
오늘은 '전광표' 작가님이 가져온 사운드캠프라는  
신기한 장비들로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채집했다.  
탕후루를 주문하는 소리, 빗물을 빗자루로 쓰는 소리,  
농구공이 튀는 소리, 일상이 달라 보이는 아름다운 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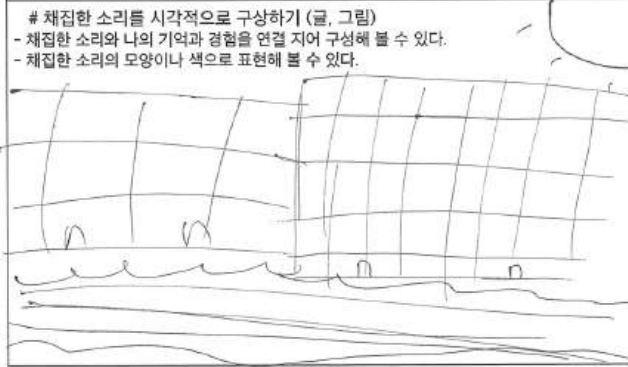
## 크루 한 마디

**한유**  
소리를 채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저 탕후루 처음 먹어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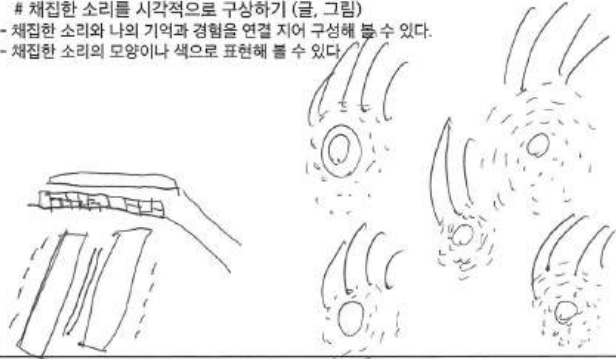
**하연**  
지연쌤이 탕후루 사줬어요.  
다 같이 먹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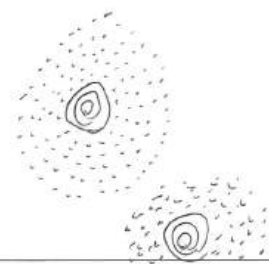
**하비에르**  
창의네여행사는  
영원할 거야.

날짜 / 날씨	2024년 6월 8일 날씨: ☁
소리채집가	모짚이
제목/파일 번호	240608_0411
장소/위치	창터근처
	<p>#귀로 관찰하고 눈을 감고 들어 보세요.          1) 소리채집 과정은 어떻게 진행 했나요?          2)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음색, 소리의 방향, 공간감은 어떤가요?</p> <p>→ 소. 조금씩 걸으면서 뛰기도하고...</p> <p>→ 2. 평소에 듣던 소리를 더 자세히 들어보니 뭔가 들뜬에 누워있는 느낌이 들고 여러소리를 듣고 좋은 평행이었다</p>
소리채집 관찰	<p># 채집한 소리를 시각적으로 구상하기 (글, 그림)          - 채집한 소리와 나의 기억과 경험을 연결 지어 구성해 볼 수 있다.          - 채집한 소리의 모양이나 색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p> 
	<p>#인상 깊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너무 즐겁고 재밌었다</p>

날짜 / 날씨	2024년 6월 8일 날씨: ☁
소리채집가	모짚이
제목/파일 번호	240608_0405
장소/위치	창터근처
	<p>#귀로 관찰하고 눈을 감고 들어 보세요.          1) 소리채집 과정은 어떻게 진행 했나요?          2)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음색, 소리의 방향, 공간감은 어떤가요?</p> <p>→ 지면생과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도 하고 뛰기도하고          걷기도 하고 좋은 거리를 갔다</p> <p>→ 많은 곳을 다니면서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 이번회에 자세히 들어서 좋았다</p>
소리채집 관찰	<p># 채집한 소리를 시각적으로 구상하기 (글, 그림)          - 채집한 소리와 나의 기억과 경험을 연결 지어 구성해 볼 수 있다.          - 채집한 소리의 모양이나 색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p> 
	<p>#인상 깊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참에 또 리모 싶었다</p>



날짜 / 날씨	2024년 6월 8 일 날씨:
소리채집가	한유
제목/파일 번호	240608_0119.mp3, <del>240608_0121.mp3</del>
장소/위치	신원도 가는 고사대로, <del>차점길</del>
소리채집 관찰	<p>#귀로 관찰하고 눈을 감고 들어 보세요.                  1) 소리채집 과정은 어떻게 진행 했나요? <sup>눈을 감고 녹음되는 소리에 집중하면서</sup>                  2)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음색, 소리의 방향, 공간감은 어떤가요?                  소리가 크고 소리는 높고 작은 소리가 점점씩 섞여있고 음색은 좀 약약하고 카카오 느낌이 꽤 방향감 차가워졌다 많아졌다.</p>
	<p># 채집한 소리를 시각적으로 구상하기 (글, 그림)                  - 채집한 소리와 나의 기억과 경험을 연결 지어 구성해 볼 수 있다.                  - 채집한 소리의 모양이나 색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p> 
	<p>#인상 깊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소리를 채집하고 소리를 듣는 과정과 소리를 작곡하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다</p>

날짜 / 날씨	2024년 6월 8 일 날씨: 맑음
소리채집가	이한유
제목/파일 번호	240608_0118
장소/위치	한강 피터 고등학교
소리채집 관찰	<p>#귀로 관찰하고 눈을 감고 들어 보세요. <sup>바다 동맹을 위해면서</sup>                  1) 소리채집 과정은 어떻게 진행 했나요?                  2)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음색, 소리의 방향, 공간감은 어떤가요?                  카카오 약아기로 카카오 전례전영 클 편, 높은 소리로 아리아킴, 신원도 느낌, 한 곳에서 이동까지 많은 소리</p>
	<p># 채집한 소리를 시각적으로 구상하기 (글, 그림)                  - 채집한 소리와 나의 기억과 경험을 연결 지어 구성해 볼 수 있다.                  - 채집한 소리의 모양이나 색으로 표현해 볼 수 있다.</p> 
	<p>#인상 깊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내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소리를 이렇게 녹음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p>

# 여섯 번째 & 일곱 번째 만남

## 만남 날

2024년 6월 15일, 29일

## 만남 장소

YDP창의예술교육센터

## 오늘 한 일

### ① 창의네어행사 작업 공간 꾸미기

창의네어행사의 작업 공간이 생겼다. 우리가 항상 만나던 세미나실을 우리 작업들로 가득 채우려 한다! 먼저 책꽂이를 조립하고 해방촌 투어에서 샀던 책들을 꽂았다. 각자가 고른 책을 1주씩 돌아가며 추천 도서로 소개하기로 하고 추천사를 썼다.



## ② 개인 프로젝트 기획, 피드백

개인 프로젝트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돌아봤던 많은 장소, 소리를 떠올리며 아이디어를 끄적였다. 크루들, 멘토들의 피드백을 들으며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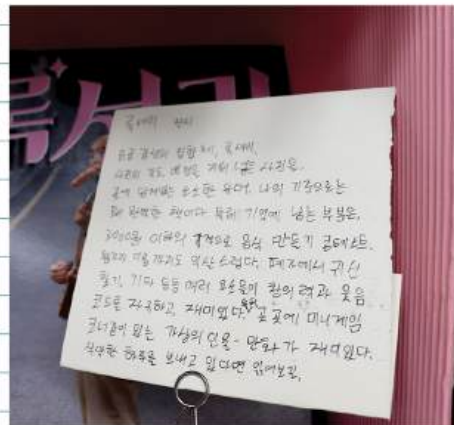


## 크루 추천 책 & 추천 한 마디

한유

『지하철에서』

이 책은 누구나 겪을 수 있을 만한 경험에서 느낀 작가의 감정을 나열해 놓았다. 흔한 경험일지라도 작가의 이야기와 강점들이 흔한 경험을 마음에 와닿게 수놓아 흔치 않은 경험처럼 보이게 하고 우리가 보는 지하철의 풍경을 다르게 보이게 해준다. 반복되는 지하철의 일상이 지루해진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잔디

『록셔리 합본호』

B급 감성의 집합체, 록셔리. 사진의 각도, 배경을 지워 넣은 사진들, 글에 담겨있는 소소한 유머, 나의 기준으로는 꽤 완벽한 책이다.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은 3,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음식 만들기 콘테스트. 참가자 이름까지도 익살스럽다. 폐가에서 귀신 찾기, 기타 등등 여러 요소가 창의력과 웃음 코드를 자극하고, 재미있다. 특히, 곳곳에 미니게임 코너같이 있는 가상의 인물-만화가 재미있다. 삭막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읽어보길.



창의내 여행사 콘텐츠 기획안

이름: 묘질

주제/제목: 행복해지는 마술, 묘질의 베이킹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베이킹이 좋아서, 나누기를 좋아해서

어떤 매체나 방법으로 창작할 계획인가요?

요리방법 카드

지역(양평동)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신유봉 쿠키, 행복한 창터 케이크

내 창작물을 어떤 사람이 보면 좋을까요?

창터 사람들, 외부 사람들

내 창작물을 본 사람이 무엇을 느끼길 바라나요?

자랑스러움, 대단

주요내용을 다섯 문장으로 정리해주세요.

요리책에 신유봉쿠키, 흑임자쿠키, 창터 케이크를 만들겠습니다

요리하는 장면을 넣겠습니다

요리책

리서치 > 기획 > 세부 리서치 > 최종 기획 > 콘텐츠 제작 > 수정/보완 > 완성

과정 설계

06.29

07.06 \*대원동 투어 가는 날

07.13 재원 구입 리스트 만들기

07.20 \*창의내 여행사 있는 날

7.17 그림 전시  
디자인, 쿠키들 그림 그리기

07.27

신유봉 쿠키 만들기, 요리카드 만들기

08.03

펼친 흑임자 쿠키 만들기, 요리카드 만들기 등 40

08.10

요리책 정리

8.17 전시 OPEN 케이크 만들기, 3팀으로 운영

참이네 여행사 콘텐츠 기획안

이름 : 잔디

주제/제목 : 선유봉 2024 (그림)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선유봉'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어떤 매체나 방법으로 창작할 계획인가요?

캔버스에 에어브러쉬

지역(양평등)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양평등 근처에 있었던 옥역한 산, 선유봉의 돌이로 만들어짐.

내 창작물을 어떤 사람이 보면 좋을까요?

양평등 4개의 역사가 공평한 사람들

내 창작물을 본 사람이 무엇을 느끼길 바라나요?

선유봉의 향기, 느낌, 역사적 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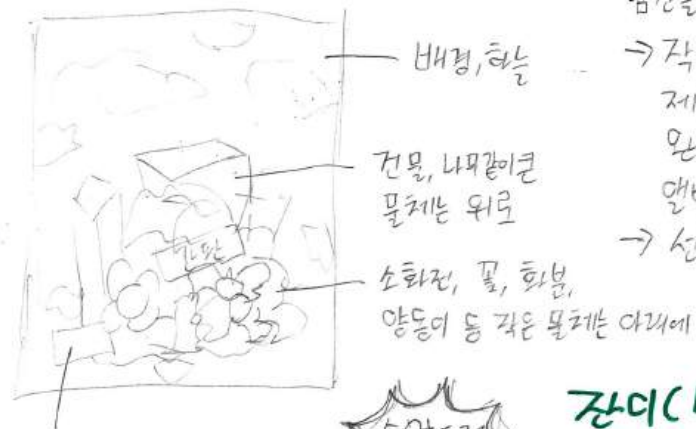
주요내용을 다섯 문장으로 정리해주세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선유봉, 선유봉으로 만들어진 양평등 4개의 사물, 자연을 수집하여 다시 쌓아낸다는 컨셉, ~~양평등 4개의~~ 양평등은 보는 사람은 선유봉이 존재할 것만 사실은 알 수 없고, '없는 것에 대한 향수'를 느끼길 바램.

## 그림/선유봉 2024

- I. 양평등 4개 주변의 사물, 자연, 건물 사진 수집, 선택, 다듬기 (배경 제거)
- II. 사진 배치, 디지털 1차 완성 (테판)
- III. 캔버스 위에 선유봉 2024 드로잉
- IV. 드로잉 스캔 후 굵은 제작 (엽서 등)  
\* 디지털로 오픈터 디자인 제작 (레이아웃)

근시이아웃



배경 제거된 물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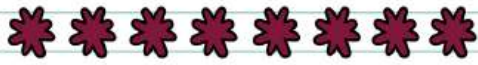
- + 가능하다면 액과틀까지.
- + 굵으로 반성한 수익은 양평등으로.
- + 에어브러쉬 사용, 붓 사용 X
- + 2024년의 선유봉이지만 가상에 존재함으로 북 모이는 에어브러쉬가 줄을 듯 함 (부드럽게)

- + 현재는 없는 선유봉, 선유봉으로 만들어진 양평등 4개의 사물, 자연을 수집하여 다시 쌓아낸다는 컨셉으로 드로잉, 굵 제작까지.
- + 선유봉 투어에서 선유봉 관련 역사 습득  
→ 해방촌 투어에서 남산등 보며 선유봉 삼기  
→ 작년 히베에르에게 제공한 사진으로 완성된 공라주 앨범커버 삼기  
→ 선유봉 2024 완.

잔디 (박진영)

선유봉  
2024





# 여덟 번째 만남

### 만남 날

2024년 7월 6일

### 만남 장소

대림동 이곳저곳,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 오늘 한 일

'황호빈'작가와 함께하는 대림동 미식투어  
두근두근... 대림역에서 출발해 대림동 골목골목을 걸었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에서 문화 다양성에 관련한 작업을 하는 '황호빈'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대림동 골목을 걸으며 눈에 띄거나 기억에 남는 것들을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대망의 작가님 Pick! 연변 음식(아라면, 중국식 짬뽕 '랑피' 등)를 맛본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 크루 한 마디

연우  
영등포에 이런 데가  
있었구나... 되게 신기했어요.

묘질  
인생네컷 다 같이 찍은  
사진으로 쿠키 틀을  
만들고 싶어요!



## 아홉 번째 ~ 열세 번째 만남

### 만남 날

2024년 7월 13일, 7월 27일  
8월 3일, 8월 10일, 8월 17일

### 오늘 한 일

나만의 프로젝트 진행 / 멘토링 / 드디어 완성!

### 만남 장소

YDP창의예술교육센터



### 연우

작품명 : 『선유봉』



#### - 작품 소개 -

선유봉에 살던 조선시대의 '봉선씨'와, 현재 선유도공원에 사는 '선유'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면서 시간 여행하는 주제의 소설이에요.

#### - 작가 한마디 -

선유도공원에 자주 갔었는데 선유봉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되어서 신기했고 그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소설을 쓰기 위해서 선유도 관련 역사를 더 찾아보면서 주인공 캐릭터에 대해 상상해 보고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 한유

작품명 : 『선유로운 동네와 음악』



#### - 작품 소개 -

양평동 4가 지역을 산책하면서 마음에 드는 공간을 찾았어요. 공간과 시간 (오전 · 오후 · 저녁)에 따라 어울리는 음악을 선곡해서 노션으로 소개하는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 - 작가 한마디 -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아 여행과 접목한 콘텐츠를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노션(Notion) : 메모, 일정 관리, 프로젝트 정리 등 다양한 작업을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올인원 플랫폼



잔디

작품명 : 『선유봉 '24』



- 작품 소개 -

과거의 선유도가 지닌 기억과 흔적을 되살려, 가상의 봉우리를 재창조했어요. 양평동 4개의 건물, 간판 등 다양한 요소들을 콜라주 형식으로 구성해 봤어요.

- 작가 한 마디 -

선유도에 지금은 없어진 선유봉을 다시 2024년 현대에 소환하는 작품을 캔버스에 그렸어요. 사라진 봉우리에 담긴 혼과 사람들의 흔적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질문을 품고 양평동 4개의 물체들을 모아 가상의 선유봉을 그려보았습니다.

40



요질

작품명 : 신나는 디저트 이야기



- 작품 소개 -

선유도 작물들의 모습을 담은 디저트 레시피북을 만들었어요.

- 작가 한 마디 -

평소 취미로 베이킹을 해요. 제 특기를 살려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디저트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제가 만든 쿠키를 맛있게 먹어주고 웃어주는 것에 큰 행복을 느껴요.

41



하비에르

작품명 : 「선유도 II (with, 창터)」



42

- 작품 소개 -

선유도와 양평등 그리고 창의네여행사, 창터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에게 애정을 표현하고자 헌정곡을 만들었어요.

- 작가 한마디 -

제 활동명은 리태그(Retaag)라고 해요. 저는 창의네여행사에 2년 동안 참여하고 있어요. 그동안 창터를 통해 관계 맺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곡을 써봤어요. 가사를 함께 보여 노래를 감상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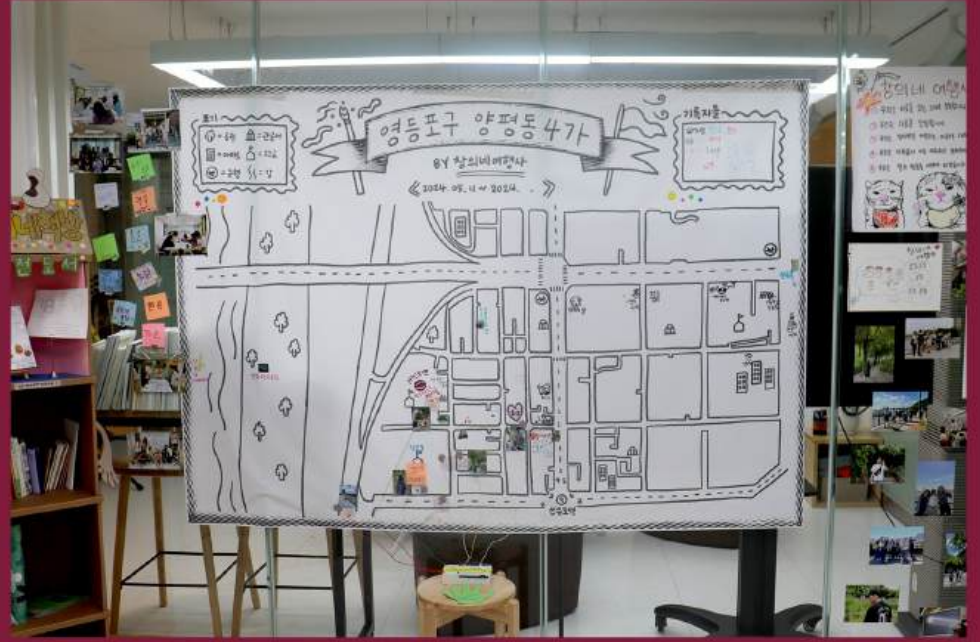
## 크루들의 사진첩

전시 기록

쇼케이스  
프리뷰 전시



2024. 8. 17 ~ 9. 7









**04.**

**창의네여행사를 마치며**



## 크루 한 마디



### 연우

즐거웠어요. 선유도공원에 가서 마을해설사 쌤이 역사를 알려준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작년에는 제 반려묘 레오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를 그렸는데 올해는 글을 써볼 수 있었어요. 창의네여행사는 자신이 무언가를 만들고 싶거나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을 때 좋은 것 같아요.

### 한유

선유도를 많이 다녔지만, 과거에 어땠는지는 하나도 몰랐고 창의네여행사를 통해 알게 된 거라서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신기한 공간이 많은 줄 몰랐어요. 많이 돌아다니면서 새롭거나 신기한 공간을 많이 찾고 이 공간에 뭐가 잘 어울릴지를 프로젝트 밖에서도 생각하게 됐어요. 공간의 분위기가 좋고 제가 선택한 노래가 조화롭게 표현된 것 같아요. 해방촌은 존재 자체도 몰랐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멋있고 특별하고 좋더라고요. 신기하고 처음 해보고 감사했던 경험이었어요.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고, 앞으로 할 일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전부 다 체험하게 해주고 창의력을 100%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었어요.

56



### 잔디

저에게 창의네여행사란 어떤 게임 아이템 중에 부스터 같은 존재예요. 해방촌 갔을 때 주변 환경이 옛날이랑 현대 것이 어우러져 있는 느낌을 받았는데 되게 좋았어요. 이번에 50호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는데요, 캔버스가 도착했을 때 두근두근하고 보람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토요일마다 나와서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일상이 행복해져서 행복 주머니도 조금 늘어났어요.

57

### 요질이

창의네여행사는 행복이에요. 다 같이 대림동 갔을 때 인생네컷 찍은 적 있거든요. 그때 나온 얼굴들로 쿠키틀을 만들어서 창터 이야기를 담은 디저트를 만들어보았어요. 사람들이 제 작업을 보면서 "많이 노력했네" 하며 웃어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다시 찾게 되었어요.

### 하비에르

작년에도 창의네여행사에서 선유도에 관한 가사를 쓰고 랩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선유도에 관련된 주제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선유도 2>로 제목을 정해서 창터에서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의 보이스를 살려서 나레이션으로 담았어요. 창의네여행사는 저에게 자유예요. Mbti "E"로 바 귀했는데 그 영향을 준 게 아마도 창터인 것 같아요.





노랑

To. 크루 친구들♡

처음 창의네 여행을 기획할 때,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설레면서도 긴장했던 기억이 나요. 10~15주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해야 하는데, 우리가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까?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떤 결과물을 만들게 될까? 이런 기대와 걱정을 안고 크루 친구들을 맞이했지요. 이미 예술가의 포스를 풍기던 잔디, 자기 생각이 또렷한 하비에르, 수줍은 듯하지만 분위기 메이커였던 묘질이, 생각이 깊고 강한 연우,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한유... 첫 수업이 끝난 후에는 지연, 토리와 함께 걱정이 무색해질 만큼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행복한 상상을 펼쳤던 기억이 나요.

회차가 지나며 여러분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정말 뿌듯하고 즐거웠어요. 사실 창작은 쉽지 않은 여정이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고뇌와 끈기가 필요하죠. 그럼에도 친구들이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막막해 보였던 주제를 하나씩 풀어가며 끝까지 해내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고, 제게도 큰 영감을 주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였기에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더 특별했다고 생각해요.

사랑스런 묘질이. 누구보다 창의네 여행을 애정하며 매년 먼 길을 와주어 고마워요. 친구들에게 먼저 손 내밀 줄 알고, 선생님들에게도 애정을 많이 표현해 준 묘질이가 창의네 여행을 늘 웃음으로 채워주었어요.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알고 애정 담긴 편지를 매년 써주는 걸 보면서 저도 묘질의의 따스한 마음을 닮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을 좋아하는 묘질의의 진심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마다 묘질의의 예쁜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없어서는 안될 존재 잔디! 처음 잔디를 만난 날에도 우리는 잔디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ㅎㅎ 잔디와 함께할수록 재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딜 가던 사랑받고 잘하겠구나 싶었지요. 대학에서도, 성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창의네 여행사에서 보여준 그 열정과 자신감을 잊지 말고, 잔디만의 길을 멋지게 개척해

나가길 바라게요. 잔디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잔디 깎기지 말고! ㅎㅎ 예술가로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할게요!

스윗가이 하비에르. 하비에르의 가사 속엔 세상을 향한 비판도 있지만 다정한 마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20대는 세상과 주파수를 맞춰 나가는 시간이기도 해요. 설렘과 기회가 많지만, 때로는 벽차기도 하고 억울한 순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비에르는 열정과 다정함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그 모든 순간을 지혜롭게 이겨낼 거라 믿어요. 세상은 종이 한 장 차이로 아름답기도 흉하기도 해요. 철학을 좋아하는 하비에르니까 이미 알 수도 있어요. 그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걸요. 성인이 된 하비에르의 미래가 무척 기대되고 언제나 응원할게요.

나와 이름도 키도 신발도 같은 연우 :) 하지만 말 많은 나와는 반대로 진중한 매력을 가진 연우. 늘 조용했던 연우가 제게 먼저 가족과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던 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레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반짝이던 눈빛도 기억에 남고요. 작품이 잘 진전되지 않아 답답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작품을 해내는 모습을 보며 우리 연우는 뭐든지 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종3이라 더 바빠지겠지요? 학업 속에서도 연우의 반짝이는 생각들을 가꾸고 표현하는 시간은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연우 내면에는 아름다운 보석이 많이 있으니까요.

풍부한 감수성을 가진 한유! 한유가 올해 처음 창의네여행사에 온 크루 중 끝까지 완주해 준 유일한 친구다 보니 얼마나 고맙던지요. 다양한 음악을 듣는 친구를 만나 정말 반가웠어요. 호기심이 많고 스스럼없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한유는 내면에 재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건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걸 가지고 무얼 할지, 어떻게 표현해 낼지는 배우고 노력하면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리를 전공하고 싶다는 한유에게 이런 장점이 있기에 잘 해낼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완주는 못 했지만 초반에 함께해준 하연, 하빈, 태완이도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길 바라요.

모두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언제나 행복하길 바라고 항상 응원할게요!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며,  
From. 노랑



## 지연


2024년 창의네여행사는 지역을 여행자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보고, 그 안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를 발견하며 이를 자신만의 창작활동으로 펼쳐나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 선유도의 역사적 흔적, 오래된 간판, YDP창의예술교육센터에 축적된 우정 등 지역의 다양한 장면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고, 양평동은 창작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선유도의 옛 이름인 '선유봉'을 상상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설, 도시 개발로 사라진 선유봉이 양평동 곳곳에 여전히 존재함을 표현한 그림, 창의네여행사 크루 간의 우정을 주제로 한 랩, 동네 분위기와 어울리는 음악 큐레이션, 선유도를 주제로 한 디지털 레시피북 등 다양한 창작물이 동동제에서 발표되었습니다.

60 크루들이 지역을 새롭게 탐구하며 스스로의 이야기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함께 하며 다시금 '여행'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여행은 장소를 탐험하며, 새로운 풍경과 사람 그리고 이야기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존재들을 마주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과 이야기에 영향을 받으며, 또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기도 합니다.

빠르게 정의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여겨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한정된 시간공간에서만 여행자로 사는 건 아닐까요? 창의네여행사를 함께 한 크루들이 언제나 여행자의 태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래도록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가 '여행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누리기를! 그리고 여행자로 살아가다 또다시 반갑게 만나기를! 모두의 여행을 애정하고 응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 토리

창터에서 생겨나는 이야기를 모아 이런저런 실험을 해본 지 어느덧 3년, 창터는 마치 생명체처럼 계속 변해가고 있어요. 사업도, 오가는 사람들도, 담당자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고민이 늘 있었지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창터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만남의 매개인 문화예술, 주로 만나는 대상인 청소년, 창터가 위치한 지역 환경, 그리고 활동의 기반이 되는 창터라는 공간. '창의네여행사'는 이 네 가지를 연결하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영등포에 사는 청소년이 자신이 살던 지역을 여행하며 어떤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나아가며 탄생한 프로젝트였죠.

61 이런 고민과 질문에서 출발한 창의네여행사는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했는데요. 요래조래 부딪히며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실험의 연속이었어요. 중1부터 고3까지의 넓은 나이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익숙한 동네를 예술가와 함께 여행하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창작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이 완성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수많은 물음표는 시간이 지나며 하나씩 답을 찾아 느낌표로 바뀌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배움이 되어 느슨하면서도 끈끈하게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드라마 같았어요. 취향과 관심사를 발견하고 마주하며 '나'를 여행하는 과정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청소년들과 함께 이 도시를 그리고 싶네요. 여행자가 되어 내가 사는 도시와 동네를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일상 속 여행의 조각들이 모여 멋진 이야기가 되기를, 창의네여행사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라요!





안녕하세요. YDP창의예술교육센터에서 청소년 사업을 담당하는 묘미입니다. 올해 7월부터 창터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창터는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통해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다정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생각했고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창터에 왔더니 별명을 쓰는 공간 문화가 있더라고요. 창터에서 일하는 동안 만큼은 또 다른 '나', 부캐가 있으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에 '즐겁게 일하며 묘미(재미)를 찾아가자!'라는 뜻에서 '묘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 창의네여행사 식구들을 만난 날이 생각나네요. 7월 초에 대림동 투어를 간 날인데 엄청 더웠어요. 예술교육가 노랑, 지연뿐만 아니라 청소년 크루들도 처음 본 날이에요. 어떤 청소년들일까, 어떤 분들일까 하는 기대감과 설렘 그리고 걱정이 되었던 하루였거든요. 하지만 다들 따뜻하게 맞이해주셔서 긴장감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날 대림동을 생애 처음 가본 날이었는데 낯선 지역에서 새로운 것들의 연속이어서 그랬는지 되근하고 늘어졌던 기억이 나네요ㅎㅎㅎ

창의네여행사 활동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창의네여행사 활동 영상 제작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MC처럼 질문하는 저도 긴장했지만, 답변하는 창의네여행사 크루들도 긴장해서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무엇보다 인터뷰하는 동안 개인의 생각들을 더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특히, 묘질이는 창의네여행사를 통해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다시 찾게 되었다면서 창의네여행사를 오면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다고 주위 친구들에게 이야기 해 주고 싶다고 인터뷰했었는데 그 말이 인상 깊었어요. 담당자로서 더 책임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창의네여행사 크루들이 창의네여행사를 통해 '개인의 성장'에서 한~두 페이지 정도는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좋은 어른들이 많았던 곳, 밝고 따뜻했던 시간이었기를 바래요. 각자 느꼈던 보람과 성취감은 다르겠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과 기분을 잊지 않고 무엇이든 도전해 보는 자신감을 가지고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2024년 창의네여행사 청소년 크루들 그리고 함께 이끌어주신 노랑, 지연, 토리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024년 YDP창의예술교육센터

## <창의네여행사> 결과자료집

청소년 기획자      강하빈(하빈), 김효정(묘질이), 박진영(잔디),  
이연우(연우), 이한유(한유), 정태완(태완),  
조하연(하연), 조하준(하비에르)

예술교육가      이연우(노랑), 이지연(지연)

기획/진행      박현빈(토리), 지연경(묘미)

운영 지원      엄지(샤인), 이강수(케이), 장혜윤(예또)

디자인      해방해방

펴낸이      이건왕(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

펴낸곳      영등포문화재단 YDP창의예술교육센터

펴낸날      2024년 12월

주소      (07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0길 8-1

전화      02-3667-9060

인스타그램      @artsedu\_ydp

홈페이지      <https://www.ydpcf.or.kr>


@YDP창의예술교육센터


본 자료집은 2024년 YDP창의예술교육센터 <창의네여행사> 사업 결과자료집입니다.

본 책에 실린 글과 도판은 YDP창의예술교육센터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창의네여행사 활동 영상 바로가기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재단

 YDP 창의예술교육센터